

XR·메타버스 신산업 육성 디지털경제 선도

전주시·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ICT기업 등 20여 개사 참여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

전주시와 공공기관, 기업들이 최근 유망 신산업으로 급부상한 XR(가상융합기술)·메타버스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은 23일 지역 내 XR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결성된 민간주도의 협력체다. 이날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기업·기관과의 협력방안도 논의했다.

시와 진흥원은 지난 4월부터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할 프로젝트 그룹을 공개 모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계획과 협력 기업별 역할 분담 등 기획안의 서류심사를 통해 사업화 모델이 가능한 최종 6개 프로젝트를 선정했다.

선정된 6개 프로젝트는 △우울증 독거노인과 MZ세대 매칭 서비스 △풍납문3길 XR스트리트 △첨마중길 XR로드 조성 △타메타버스 '판플레이 Pan Play' △전북 메타버스 생태마을



전주시와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23일 지역 내 XR산업을 선도하는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플랫폼 구축 △비투게터(디지털 양봉 서비스) 등이다. 약 20여 개의 기업이 이들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프로젝트 참여 기업들은 오는 9월까지 프로젝트 사업화를 위한 최종 비즈니스모델을 도출한 후 사업제안서 결

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이들 기업과 공동으로 국가사업 발굴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20년 12월 발표된 정부의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 발맞춰 지난해부터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주도의 확장가상세계를 선도하기 위해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를 기획하고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얼라이언스 활동을 통해 5개의 과제와 국가 공모에 선정되는 등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시와 진흥원은 향후에도 얼라이언스 참여기업들의 사업계획을 구체화를 돕기 위해 XR 관련 인프라와 기술개발,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XR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첨마중길 VR·AR제작거점센터와 스마트미디어 센터를 활용해 전문인력 양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동력 관계자는 "비대면 시대에 돌입하면서 XR 기술은 전 세계의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에 적응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술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이번 전주 XR·메타버스 산업 얼라이언스가 발판이 되어 지역 내 ICT기업들이 XR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산업을 육성으로 가상융합경제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디지털경제 선도 도시 전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민주당 견제 통해 바른 정치 구현”

제12대 전주시의회 무소속·국민의힘·정의당 연합 원내 교섭단체 구성... 박혜숙 의원 원내대표 선출

제12대 전주시의회에 기존 민주당 이외의 새로운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됐다.

민주당 소속 29명의 당선인을 제외한 6명의 당선인들은 23일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대표로 송천1동 당선자 박혜숙(사진)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전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



니하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번 제12대 전주시의회에서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민주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했으나 다른 당들은 소속의원 5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박 대표는 "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치우치지 않는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면서 "민주당 견제를 통해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호우 대비 건축·건설현장 안전점검

신축 건축공사장 15개소·건설현장 2개소·도로·하천 시설물 216개소 대상 실시

전주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건축·건설 공사현장과 시설물 안전 점검에 나섰다.

시는 지난 7일부터 22일까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해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신축 건축공사장 15개소 △에코시티 2단계 조성사업과 효천지구 연계도로 확장사업 등 건설현장 2개소 △도로·하천 등 시설물 216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고발생 위험요소를 사

전에 제거해 건축공사장 인명피해 재발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현장 주변 주택과 시설물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건축공사장 15개소와 건설현장 2개소에 대해서는 △집중호우 시 배수 계획 적정 여부 △수방자재 확보 상태 △공사현장 가설 가림막 및 위해 방지 시설 설치 여부 △토사사면 유실방지 조치 여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가배수 및 침사지 설치 여부 등 현장별 각종 위험요소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점검했으며, 안전점검 결과 수방자재 관리, 건축자재 정비, 추락방지

시설 미비 등 경미한 사항이 발생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장관리자에게 시정조치 했다.

또한 도로 시설물 184개소에 대해서는 측구 측에 쌓인 퇴적도와 쓰레기,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포트홀 등 도로 포장 파손부위, 지하보도 내부 조도 점검, 언더패스 차단기 작동 여부, 차선규제봉과 난간,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도로시설물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했으며, 점검결과 도로시설물 100개소에 대해 배수구 청소 등을 즉각 시행했고, 도로포장 파손이 확인된 교량 2개소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보수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범람사고 예방을 위해 하천 32개소에 대해서는 △하천 유수지장물 제거 △배수펌프장, 배수통문 등 하천시설물 정상작동 여부 △하천 내 유수지장 수목 정비 등을 실시했다.

시는 향후에도 건설현장 등에서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우기철은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공사현장과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철저한 현장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3일 반월동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복지관 관계자, 자생단체 회원, 인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기념하는 제막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덕진권역 최초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

전주시, 준공 기념 제막식·기념식수 행사 거행... 10월 개관

전주 북부권 주민들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거점공간이 마련됐다.

전주시는 23일 반월동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복지관 관계자, 자생단체 회원, 인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을 기념하는 제막식 및 기념식수 행사를 가졌다.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은 기존 전주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가 모두 완공에 편승된 복지시설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덕진구에 건립된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이다.

총사업비 97억 원이 투입된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다. 시는 이곳을 청소년, 노인, 지역주민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 가능한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운영

할 예정이다. 운영 준비기간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관 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북부권 복합복지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준공을 앞두고 실시한 명칭 공모전을 통해 '덕진'의 지명유래를 반영한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결정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소득 차이나 연령, 거주하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면서 "덕진권역 최초의 종합사회복지관이 큰나루 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 덕진구 주민들의 복지관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거점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형 일자리 활성화 기여 공로 감사패

시, 호성첨단소재·테크카본·케이지에프에 전달

전주시가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탄소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시는 23일 전주형 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호성첨단소재(주)(대표 이진중), (주)테크카본(대표 김광수·우종인), (주)케이지에프(대표 황승국)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시는 지난 1월 이들 기업과 지역사회 핵심산업인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주형 일자리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기업은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1662억 원을 투자해 232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탄소산업 동반성장 프로그램 확대 △기술재류 및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시제품 사업화 공

간 제공 △호성 탄소섬유 지속적 확대 사용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전주형 일자리 리딩기업인 호성첨단소재(주)의 경우 전주공정에 469억 원을 투자해 내년 4월까지 탄소섬유 생산 능력을 총 9000t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20년과 2021년에 이은 3차 생산라인 증설로, 향후 지역인재 채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2일 전주형 신창업허브 첨단누리홀에서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 관계자와 전북대 산학협력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전주형 일자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참여기업들의 의견 및 애로사항 공유에 이어 산업



부 전주형 일자리 지정을 위한 구체적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시는 전주형 일자리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및 종합토의를 통해 참여기업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김종성 전주시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장은 "지역핵심 산업인 탄소산

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상생,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협력해 주신 협약기업 대표 및 관계자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전주형 일자리 참여기업의 요구사항 및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고 산업부 전주형 일자리 지정 신청 시 지원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교통사고 줄이기 위한 회전교차로 개선·설치

전주시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회전교차로를 확충한다.

시는 올해 호성동 지행당길 교차로를 차량통행 효율성이 높고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회전교차로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설치해서 자동차가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도록 하는 교차로다. 회전교차로에서는 회전 중인 차량에 통행우선권

이 주어지며, 진입하려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전라북도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 설치된 회전교차로 4개소의 경우 기존보다 사고 건수가 5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신호대기 시간이 길어 지체되는 교차로와 교통사고가 많은 교차로, Y자형 등 기형적인 교차로를 선정해

해마다 회전교차로로 개선하고 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위해 매년 2억 8000만 원(도비 50%, 시비 50%)을 투자하고 있으며,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추가 투자해 공사를 하고 있다.

내년에는 일당동 모악로 교차로와 효자동 효령공원 일원 등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지는 경찰 등 교통 관계기관과의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시는 Y자형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바꾼 반월삼거리 교차로를 포함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3곳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개선했다. 반월삼거리 교차로의 경우 회전교차로로 개선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에만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배회곤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올해 추진되는 호성동 지행당길 회전교차로 개선이 이뤄지면 사고율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고위험이 높은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한국탄소산업진흥원, '이(異)업종 포럼' 개최

전주시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23일 탄소와 식품 등 6개 지역특화분야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한 '제2회 이(異)업종 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에는 △탄소 △식품 △공예품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부품 △화학품의 6개 지역특화분야 업종 중소기업 중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된 26개 기업이 참여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목표한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와 진흥원, 26개 기업은 특화분야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공유하면서 이

(異)업종 간 정보교류 시간을 통해 향후 성장 발판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주현 전북지방보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달절차와 계약방법 등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무교육도 진행됐다.

전주시 중소기업과 관계자는 "2019년부터 4년간 전주형 중소기업 특화분야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136개사가 지원을 받았고, 수혜기업의 평균 매출액 6.1%, 평균 고용률 12%가 증가한 바 있다"며 "사업이 종료되는 2022년도까지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